

갈뱅의 신론에 관한 연구

최 윤 배 (장로회신학대학교)

1. 서론

“신학”(theologia)은 곧, “신에 관한 로기아”이고, 기독교 초기역사에서 신학은 좁은 의미에서 신론(神論), 특별히 삼위일체론으로 이해되었을 만큼 신론은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칼빈연구사를 전개한 니젤은 칼빈의 중심 사상이 그리스도론이라고 주장했지만,⁴⁶⁾ 대부분의 개혁파 정통주의신학자들과 두 메르그(E. Doumergue)와 이오갑은 칼빈 사상의 중심이 신론이라고 주장한다.⁴⁷⁾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과 칼빈 신학에서 차지하는 신론의 큰 비중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프랑스어로 “장 갈뱅”(Jean Calvin, 1509. 7. 10~1564. 5. 27)은 프랑스 파리 북동쪽 96km 떨어진 피카르디 지방의 느와용(Noyon)에서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나 1564년 5월 27일 제네바에서 임종했는데, 제네바 공동묘지에 5월 28일에 그의 유언대로 묘비명 없이 평토장되어 지금도 그의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혁파 종교개혁자 칼빈의 사상은 종교개혁신학과 개혁신학과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종교개혁파와 개혁신학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칼빈의 신론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회의 신학과 목회의 발전을 위해 틀림없이 좋은 기초석이 될 것이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신론(*De Deo*)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존재(*existentia Dei*),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substantia et attributa*), 하나님의 사역(*operatio*)을 기술한 후, 삼위일체론을 기술하였고,⁴⁸⁾ 네덜란드의 바빙크는 신론 기술에서 하나님의 불가해성(不可解性)과 가해성, 하나님의 이름들과 명칭들, 하나님의 비공유적(非共同的), 공유적 속성들에 대하여 논의한 뒤에 삼위일체론과 하나

46)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9-22.

47) 이오갑, 『갈뱅의 신과 세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77-396.

48) Auctore F. Lebrethon (ed.), *Theologia seminariorum totius Orbis seu Sancti Thomae Aquinatis Summa Minor I* (Paris: Berche & Pralin, 1877), 390ff.

님의 작정(作定; decree; raad)에 대하여 기술했다.⁴⁹⁾ 베르코프(Louis Berkhof)는 신론을 하나님의 존재(하나님의 존재, 인식가능성, 이름들,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 삼위일체론)와 사역(작정, 예정, 창조, 섭리)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⁵⁰⁾ 이종성은 신론을 신의 지식, 신의 실존(본질, 속성, 진리), 신의 역사(役事)로 나누어 기술하고,⁵¹⁾ 삼위일체론을 두 권으로 따로 저술하였다.⁵²⁾

김균진은 신론을 성서의 하나님, 삼위일체론, 예정론,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속성의 순서로 다루었다.⁵³⁾ 유해무는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 사이를 분리시켜 이해한 전통적 기술방법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신론은 삼위일체론으로부터 출발해야함을 역설하고, 삼위 하나님(존재, 인식가능성, 이름, 삼위일체론, 속성), 하나님의 뜻(작정), 창조, 섭리, 인간의 순서로 기술하였다.⁵⁴⁾ 이상과 같이 조직신학에서 신론에 대한 다양한 기술방법에도 불구하고, 신론은 조직신학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빈의 신론 기술과 관련하여, 멀러는 신지식, 본질, 속성, 세계창조와 섭리 및 인간창조와 예정을 다루고,⁵⁵⁾ 니젤은 하나님 인식, 삼위일체론, 창조와 섭리의 순서로,⁵⁶⁾ 방델은 하나님 인식과 계시, 삼위일체, 창조, 섭리의 순서로 기술하였다.⁵⁷⁾ 박해경은 칼빈의 신론을 신지식론, 계시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론, 창조론, 섭리론의 순서로 논의하고,⁵⁸⁾ 이오갑은 신의 초월과 임재, 신 인식론, 계시론, 성서론, 삼위일체론, 창조론, 섭리론, 신정론, 예정론의 순서로 논의하였다.⁵⁹⁾ 칼빈의 신론 기술과 관련하여 이오갑의 경우에는 신론 논의 속에 예정론이 포함되었고, 니젤과⁶⁰⁾ 방델은⁶¹⁾ 예정론을 구원론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 셸터르하위스는 칼빈의

49)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2* (Kampen: J. H. Kok, 1928), lff.

5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38/1949), 19ff.

51) 이종성, 『춘계이종성저작전집: 조직신학대계 3: 신론』(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52) 이종성, 『춘계이종성저작전집: 조직신학대계 6: 삼위일체론(1)』(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춘계이종성저작전집: 조직신학대계 7: 삼위일체론(2)』(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53)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4), 214-324.

54) 유해무, 『개혁신학의 송영으로서의 신학』(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128-129.

55) Pieter Johannes Muller, *De Godsleer van Calvijn* (Groningen: J. B. Wolters, 1881).

56)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23-77.

57) François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110-136.

58) 박해경, 『칼빈의 신론』(서울: 이컴비즈넷, 2005), 76-326.

59)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1-356.

60)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161-182.

61) François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199-216.

『시편주석』을 분석하여 신론을 재구성하였다.⁶²⁾ 칼빈의 예정론과 섭리론의 관계 문제와, 예정론의 조직신학 각론(各論; locus)에서의 위치 문제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⁶³⁾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칼빈의 작품은 너무나도 방대하고,⁶⁴⁾ 또한 그의 신론에 대한 연구 자료도 분량이 상당하여,⁶⁵⁾ 이 모든 작품들과 자료들을 참고하여 그의 신론을 연구하는 것은 본고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칼빈의 다양한 작품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나타나지만, 특별히 그의 주저『기독교 강요』초판(1536)에서 그의 초기의 신론이, 『기독교 강요』최종판(1559), 특히 제1권에서 그의 말기의 신론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⁶⁶⁾ 우리는 그의『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의 다른 작품들과, 중요한 제2차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칼빈의 신론을

62) Herman J. Selderhuis, *Gott in der Mitte*, 장호광 역, 『중심에 계신 하나님: 칼빈의 시편신학』(서울: 기독교서회, 2009).

63)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필자의 네덜란드 아펠도른(Apeldoorn) 기독교개혁신학대학교의 신학박사학위 논문과 이양호의 글을 참고하시오: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n* (Leiden: J. J. Groen en Zoon, 1996), 88-88-119;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33-149.

64) 참고, Wulfert de Greef, *Johannes Calvin: zijn werk en geschriften* (Kampen: Uitgeverij Kok, 20062); 볼페르트 더 흐레이프,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황대우·김미정 역,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서울: SFC출판부, 2006).

65) 참고, Wilhelm Niesel, *Calvin-Bibliographie 1901-1959*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1);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과 독특성과 중요성,”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연구』창간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1-69; 박해경, “칼빈의 신론,”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개요』(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1-48; 박해경, 『칼빈의 신론』(서울: 이컴비즈넷, 2005); 유해무, “칼빈의 삼위일체론,”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해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33-153; 유해무, “칼빈의 삼위일체론, 동방신학과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과 목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7-31;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차원영, “칼뱅의 창조론,”(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09); 최윤배 공저,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최윤배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Arie Baars, *Om Gods verhevenheid en Zijn nabijheid: De Drie-eenheid bij Calvin* (Kampen: Uitgeverij Kok, 2004); Ph. W.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n* (Leiden: J. J. Groen en Zoon, 1996), 38-77; J. P. Mackey, *The Christian Experience of God as Trinity* (London: SCM Press, 1981);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T. F. Torrance,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Gregory of Nazianzus and John Calvin,” T. F. Torrance, *Trinitarian Perspectives* (Edinburgh: T. & T. Clark, 1994); F.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B. B.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the Trinity,”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1931).

66) 삼위일체론의 경우, 성서주석의 내용과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92-193.

기술함으로써 본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의『기독교 강요』최종판(1559)의 제1권 “창조주에 대한 인식”(de cognitione Creatoris)을 중심으로⁶⁷⁾ 그의 신론을 전개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예정론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기독교 강요』(1559)의 제1권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부터 12장까지는 신 인식론과 계시론을, 제13장은 삼위일체론을, 제14장과 15장은 창조론을, 제16장부터 제18장까지는 섭리론을 취급하고 있다.⁶⁸⁾ 우리는 칼빈의 신론을 신인식과 계시, 속성, 삼위일체, 창조와 섭리의 순서로 기술하되, 사변적인 신론이 아니라, 칼빈의 성서적이며, 실천적인 신론을 전개한다는 의도로 각 장(章)의 제목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II. 계시하시고 인식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1.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의 밀접한 상관성

교회사와 신학사(神學史)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知識; *cognitio*) 또는 인식(認識)과 우리에게 대한 지식 또는 인식은 종종 서로 떨어지거나 일방적으로 한 쪽만이 강조되어 신앙의 불균형이 초래되곤 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주로 십계명의 첫째 돌 판에 나타나고(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대한 지식은 주로 십계명의 둘째 돌 판(이웃 사랑)에 나타나는데, 이 두 돌 판이 서로 떨어지거나 한 쪽으로 편중될 경우 신앙과 신학은 병들게 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1권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게 대한 지식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말한다. 이 점에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교회의 올바른 신앙 전통 속에서 있는데,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 츠빙글리, 부처는 이 두 지식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강조했다.

칼빈의 경우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게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67)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Liber primus. DE COGNITIONE DEI CREATORIS.” in: P. Barth, G. Niesel (ed.),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OS) Volumen III, 31. 비록 “인식”(cognitio)과 “지식”(notitia)이라는 국어 상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본고에서 이 두 단어를 특별한 구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68) OS III, 31-227.

있다.⁶⁹⁾ 이 두 지식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지식이 우선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⁷⁰⁾ 왜냐하면 칼빈 자신이 어떤 때는 “우리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온다.”고 말하면서도,⁷¹⁾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에게 대한 지식이 나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⁷²⁾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sapientia*),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cognitio*)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⁷³⁾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칼빈은 먼저 전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에 후자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이 교육상 올바른 순서라고 말한다.⁷⁴⁾

2.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二重知識, *duplex cognitio Dei*)과 우리의 신앙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게 대한 지식에 대한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및 섭리주이신 동시에 구속주라는 내용을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二重知識, *duplex cognitio Dei*)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대한 지식과 대비시켜보면, 우리에게 대한 지식은 아주 쉽게 도출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구속받은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일반 자연인(自然人)에게는 이것이 자명

6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제1권 i장 1절. 앞으로 제1권 i장 1절을 I i 1로 표기하기로 한다.

7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1.

7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1.

7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2.

7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1.

7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 3.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신앙과 참된 경건을 가진 신앙인(信仰人)이 될 때야 비로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창조주 지식, 필자주)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계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구속주 지식, 필자주)은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신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 주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duplex … cognitio*)이 생긴다. …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앞으로써 오는 것이다.”⁷⁵⁾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쳐야하며, 둘째로 그의 수중에 있는 모든 선을 갈망하도록 가르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그에게 찬송을 드리도록 가르쳐야한다. 순수하고 참다운 종교의 본질은 신앙에 있다. 이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발적인 경외심을 내포하고 율법의 명령에 일치되는 정당한 예배를 가지게 한다.⁷⁶⁾

3. 자연계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과 우리에게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칼빈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사이에는 양적이면서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 역사, 자연, 우주 등이 해당되는 ‘자연계시(自然啓示)’ 또는 ‘일반계시(一般啓示)’ 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다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특별계시(特別啓示)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중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⁷⁷⁾

7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i 1.

7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i 2.

77)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는 용어는 칼빈 자신이 사용한 용어는 아니고, 제한성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칼빈의 인식론과 계시론 논의를 위해 유용하고 편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 89-90; 최운배, 『칼뱅의 과학에 대한 이해』, 한국조직신학회 편, 『한국조직신학논총』 제26집(2010), 16.

칼빈에 의하면, 인간, 역사, 그리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존재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無知)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상숭배조차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우연히 고안한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무신론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계시는 세계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자연계시는 인간 속에서 우상숭배와 무지와 악독 등으로 오용되고 왜곡되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연계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모든 피조물과 자연 속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연계시는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신앙 없이 그리고 성경에서 얻은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이 바라볼 때, '주관적으로' 더욱 왜곡되게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어떤 섬광은 과연 밝다. 그러나 강력한 빛을 발하기 전에 꺼지고 만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볼 수 없는 신성이 볼 수 있는 객체물로서 표현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지지 못한다.”⁷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자체가 바로 여기에 대한 증거이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religionis semen*)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사실 우상숭배(*idololatria*)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라 하겠다.”⁷⁹⁾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 종교의 씨앗을 효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용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있다고 칼빈은 계속적으로 지적한다. “하나님이 각자

7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14.

7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ii 1.

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지만, 받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백 명 중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어떤 이는 자기들의 미신 속에 ... 다른 어떤 자들은 고의적인 사악으로서 ... 하여간 전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퇴락 되었다.”⁸⁰⁾ “근절할 수 없는 씨앗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념은 아직도 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부패하였으므로 가장 악한 열매를 맺을 뿐이다.”⁸¹⁾ 인간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와 오용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적으로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세계 구성의 각 부분 속에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구성의 각 부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위에 그의 영광을 너무나 명백하고 모호한 점 하나 없이 현저하게 새겨두셨으므로, 일자무식한 자나 우둔한 자라도 무지를 구실로 변명할 수는 없다.”⁸²⁾

결론적으로, 칼빈의 경우, 자연계시의 기능은 우리의 무지를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이며, 자연계시의 한계는 우리가 구속주 지식을 갖지 못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뛰어 넘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시의 한계와 가치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특별계시와 성령 및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요청된다.

4. 특별계시로서의 성경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 성경비판학이 발달된 이래 성경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경영감설 논쟁이나 성경고등비평 논쟁과 결부하여 칼빈의 성경관을 다루지 않고,⁸³⁾ 다음과 같이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즉, 칼빈의 경우, 성경은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8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1.

8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4.

8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 1.

83) 최윤배, “칼빈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성서마당』(2009 가을 신창간 제22호 통권 91호), 33.

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칼빈은 크게 두 진영과 논쟁하였다. 한 편으로 그는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도 정경(正經)을 결정한 교회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를 반대하여 논쟁하였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다면 왜 어떤 책은 그 성수(聖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그러므로, 그들은(중세 로마가톨릭교회, 필자주) 말하기를 교회의 결정 하에 있다고 한다.”⁸⁴⁾

다른 편으로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성경 외에 교회나 그리스도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시를 주장한 열광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칼뱅은 논쟁하였다.

“요사이 어떤 견실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만하게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경 읽기를 거절하면서 소위 그들이(종교개혁자들, 필자주) 죽은 문자에 아직도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이 순진하다고 비웃는다. …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직무는 듣지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 우리의 마음을 복음이 전해준 동일한 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있다.”⁸⁵⁾

1)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로서의 성경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관은 넓은 의미에서 계시론의 범주 안에서 취급된다.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 역사, 자연, 그리고 우주 속에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일반 지식이 반영되어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러한 피조물 속에 계시되어 있는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 지식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 안에 여전히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 지식을 볼 수 있는 인식력의 훼손으로 이 지식을 왜곡되게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 자신의 무지함을 면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의 무지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8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i 1.

8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x 1.

인간의 타락 이후 자연인이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자, 하나님은 자비의 행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외적 수단이 된다.

타락으로 눈이 멀어진 우리가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을 구속하고 계시는 구속주 하나님 지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二重知識, *duplex cognitio Dei*)을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⁸⁶⁾

계속해서 칼빈은 “사람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다도 더 나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도움이란 칼빈의 용어로 ‘안경’ 즉, 성경을 의미한다. 성경을 읽는데 있어서 안경의 기능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경말씀이라는 빛을 덧붙여 주셔서 사람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특권을 베푸신 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닌 것이다.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런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⁸⁷⁾

2)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은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다. 칼빈에 의하면, 이 온전한 계시가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8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i 1.

8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1.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알리셨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일과 사역을 통해서 알리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족장들이 그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셨다. …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를 위하여 율법이 반포되었고, 후에 선지자들이 율법의 해석자들로 추가 되었다. …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롬10:4) 여기서 다시 한 번 반복하여 말하거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믿음과 회개 외에도,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갖 다른 거짓 신들과 혼동할 수 없도록 그 분에 대한 분명한 표증들과 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⁸⁸⁾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비롯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 지식과 인간 지식을 맛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살핌이라고 갈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 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완전하며 모든 면에서 충족한 믿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을 돌보시는 것이 분명하다.”⁸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큰 오류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식과 인간 지식이 왜곡되어 모든 피조세계를 통하여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 지식을 잃게 된다.⁹⁰⁾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8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2.

8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2.

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⁹¹⁾

3) 성령과 불가분리의 관계로서의 성경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서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적 권위를 칼빈은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기록된 구약성경은 그 내용이 인간의 지해를 넘어서며, 그 연대가 오래며, 조상들의 수치스런 일까지 기록하였으며, 기적들에 의해서 말씀이 입증되었으며,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되었다는 관점에서 객관적 권위가 있다. 그리고 기록된 신약성경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기록했지만, 하늘의 신비를 전해주며, 모든 세계교회가 존경하고 있으며, 순교자들이 성경적 교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객관적 권위를 갖고 있다.⁹²⁾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즉 외적 권위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권위이다. 성경에 대한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내적 증거 또는 조명(*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신적 위엄을 가지긴 하지만, 성경의 독자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그 위엄을 믿을 때, 비로소 신적 위엄을 가진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위엄이 거기에 나타나긴 하지만, 성령에 의해 조명된 자들이 아니고는 ... 불 눈들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다.⁹³⁾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적합한 증인이듯이 그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한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들이 신실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⁹⁴⁾

칼빈은 성경 기록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영감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신적 기원과 신적 권위를 말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

9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3.

9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 4.

9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ii.

93) John Calvin, 『디모데후서 주석』, 딤후 3:16.

9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i 4.

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⁹⁵⁾ 계속하여 성경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의 중요성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자증(自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
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
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
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⁹⁶⁾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끈으로 연계되어 있다.”⁹⁷⁾ 특히 성경을 죽은 문자로 이해하여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성경 이외의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열광주의자들의 입장에 반대하여 칼빈은 성경과 성령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한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시므로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대하여 큰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내가 앞에서 주장한 것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⁹⁸⁾

95) John Calvin, 『디모데후서 주석』, 답후 3:16.

9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vii 5.

97) W. van 't Spijker, *Johannes Calvin: Zijn Leven en Zijn Werk*, 박태현 역, 『칼빈의 생애와 신학』(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231.

9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x 3.

III. 사랑과 공의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屬性, attribute)을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 자세히 논의한 아퀴나스와 개신교 정통주의신학자들과는 달리 칼빈은 속성론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칼빈의 작품 도처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⁹⁹⁾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차이를 밝힌 칼빈은 이 두 계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특별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우리가 이 지식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다. 비록 칼빈은 세 가지 속성, 즉 자비하심(*misericordiam*), 공의(*iustitiam*), 심판(*iudicium*)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칼빈이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대표적 두 가지 속성인 '사랑'과 '공의'로 단순화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성경의 각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선하심(*bonitas*)과 또한 은혜로우신(*beneficentiam*) 그의 뜻(*voluntas*)에 대한 묘사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공의(*iustum*)로 벌하시는 분이심을, 특히 그의 인내 또는 관용(*tolerantia*)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 보여주는 엄격한 실례들도 만나게 된다.”¹⁰⁰⁾

칼빈은 성경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추상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며, 생생하고도, 체험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자연계시 속에서도 특별계시 속에서도처럼 동일하게 체험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속성론에 대한 그의 ‘경륜적’ 기술방법은 사변적인 스콜라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내재적’ 기술방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이오값은 칼빈이 이해한 하나님 속성론의 특징을 올바르게 간파하였다. “그런 점에서 칼뱅에 따른 하나님은 ‘누구인가’ (Qui)나 ‘무엇인가’ (Que)가 아니라 ‘어떤가’ (Comment)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을 그 존재에서가 아니라 드러난 그

99) 박해경, 『칼빈의 신론』, 185-191.

10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 1.

성격, 방식에서 본 것이다. 실제로 갈뱅은 하나님을 본질로써가 아니라 사역들과 작품들, 속성들(propriétés)로써 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¹⁰¹⁾ 칼빈에 의하면, 출애굽기 34장 6-7절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aeternitatem)과 자존성(καὶ αὐτοῦται)이 그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두 번씩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들(virtutes)이 언급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은 그저 허망한 과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능력들은 우리가 이미 본 하늘과 땅에서 빛나는 능력들과 동일한 것이니, 곧 인자하심(clementiam), 선하심(bonitatem), 자비하심(misericordiam), 공의(iustitiam), 심판(iudicium), 그리고 진리(veritatem)가 그것이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는 엘로힘이라는 칭호에 포함되어 있다.”¹⁰²⁾

칼빈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misericordiam), 심판(iudicium), 공의(iustitiam)의 속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을 잊지 말 것을 역설하면서, 성경과 피조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 “온전히 순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배우고, “그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을 촉구한다.¹⁰³⁾

“이 세 가지(자비하심, 심판, 공의, 필자주)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자비하심(misericordiam)에 달려 있으며, 심판(iudicium)은 행악자들에게 날마다 시행되며 또 심판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가혹하게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바로 공의(iustitiam)를 통해 신자들이 보존되고, 잘 양육된다.”¹⁰⁴⁾

101) 이오갑, 『갈뱅의 신과 세계』, 31.

10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 2.

10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 2.

10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 2.

IV. 삼위일체 하나님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 제I권 제13장의 제목을 “성경은 창조 이래 하나님은 한 본질(*Unicam ... essentiam*)이시며, 이 본질 안에 세 인(위)격들(*tres ... personas*)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로 붙였다.¹⁰⁵⁾ 삼위일체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칼빈은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본질(本質, *essentia Dei*)로서 하나님의 무한성(無限性)과 영성(靈性)(*de immensa et spirituali*)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불가해성(不可解性) 및 초월성과 내재성을 언급하는 가운데,¹⁰⁶⁾ 범신론, 마니교의 이원론,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을 비판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방법으로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적응(*accommodatio Dei*) 사상을 소개한다.¹⁰⁷⁾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Dei essentia*)이 무한하며, 영적이라고(*de immensa et spirituali*) 가르치는데 이는 일반 대중의 망상을 일축할 뿐만 아니라, 세속 철학의 교묘한 이론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 그런 형식의 말씀들(신인동형동성론적인 표현들, 필자주)은 우리의 연약한 역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accomodant*) 그렇게 높으시게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낮게 내려 오셔서(*descendere*) 말씀하신 것이다.”¹⁰⁸⁾

종교개혁 진영으로 전향했다가 로마가톨릭진영으로 다시 돌아갔던 까롤리(*P. Caroli*)는 파렐(*G. Farel*)의 작품(*Sommaire*)과, 『신앙고백』(불어판 1537; 라틴어판 1538)에 “삼위일체”와 “인(위)격”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렐

10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1 = OS III, 108: “Unicam Dei essentiam ab ipsa creatione tradi in Scripturis, quae tres in se personas continet. CAP. XIII.” 우리는 본고에서 ‘persona’를 “인격”과 “위격”으로 혼용하여 쓰도록 한다.

106) 칼빈이 이해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훌륭한 파악은 이오갑과 바르스의 글에 잘 나타난다.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 19ff; A. Baars, *Om Gods verhevenheid en Zijn nabijheid*, 707: “Finally: Calvin’s doctrine of the Trinity has two central components: the triune God is the Exalted One, ‘the wholly Other’. Simultaneously, He is very near in Christ and through His Spirit.”

107) 칼빈의 계시론에 나타난 “*accommodatio Dei*” 사상에 대해 다음을 참고하시오, 신정우, “칼빈의 계시론,”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개요』, 49-68.

10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1.

과 칼빈을 아리우스주의자로 부당하게 정죄했다.¹⁰⁹⁾ 비록 칼빈이 신학 용어나 고대 교리에 대한 입장은 항상 근본적으로 동일했으나 까롤리 사건을 계기로 후대로 갈수록 신학 용어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바, 『기독교강요』(1559) 최종판에서 히브리서 1:3절로부터 용어 ‘히포스타시스’ (*hypostasis*)를 직접 인용하기까지 한다.¹¹⁰⁾ 칼빈에게 신학 용어는 성경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성을 갖는 동시에 한계성도 갖고 있다.

“칼빈은 고대 교리의 용어의 필요성과 한계성을 인정한다. 칼빈에게 신학 용어들, 교부들, 공의회들, 고대교회의 신앙고백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성경 위에 있지 않고, 성경과 일치할 때,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 안에 서있으며, 교회를 섬기게 된다. 이것들은 성경에 종속되어야 한다.”¹¹¹⁾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반(反)삼위일체론자들(Servetus, Gentilis, M. Gribaldi, G. Brandrata), 특히 세르베투스를 통해서 발전되었지만,¹¹²⁾ 그의 삼위일체론은 근본적으로 그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초기에는 삼위일체론의 신학 용어를 중심으로 까롤리와 논쟁했고, 그의 후기에는 주로 세르베투스와 의 논쟁을 통해서 어느 종교개혁자들 보다도 삼위일체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삼위일체론 또는 기독교론 이단자(異端者)로서 화형당한 세르베투스 문제를 중심으로 칼빈 자신은 물론 개혁교회 전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칼빈 당시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칼빈과 개혁교회 전통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오해들이 풀릴 것이다.¹¹³⁾

칼빈은 올바른 고대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근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세 인(위)격들’ [“*una substantia* (= *essentia* = *ὁμία*) *tres personae* (= *hypostaseis* = *ὑποστάσεις* = *πρόσωπα*)”]을 주장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한(*unicus*) ‘본질’이라는 용어 ‘수브스탄티아’ (*substantia*) 보다는 용어 ‘에센티아’

109)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n*, 45.

11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2.

111)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n*, 41.

112)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n*, 68, 특히, 68-73.

113) 참고, 최윤배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267-269.

(*essentia*)를 더 선호하고, ‘인(위)격’이라는 용어를 위해 『기독교강요』(1559) 최종 판에서 히브리서 1:3절로부터 용어 ‘히포스타시스’(*hypostasis*)를 직접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한다.

“내가 인(위)격(*persona*)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essentia*) 안의 실체(*subsistentia*)를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실체(*subsistentia*)와 관계(*relata*)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전달할 수 없는 고유성(*proprietas*)을 통해서 구별된다.”¹¹⁴⁾

칼빈은 각 인(위)격(*persona*), 곧 실체(*subsistentia*)가 갖고 있는 고유성(固有性, *proprietas*)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구별에 대하여 묵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다음과 같다.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성령은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둘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¹¹⁵⁾

결국 칼빈의 경우,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위)격(*persona*)은¹¹⁶⁾ 하나님의 본질(*essentia = substantia*)과 함께 다른 인(위)격이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인(위)격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자신의 “유일한 고유성”(*unicueque proprietas*)을 갖고 있다.¹¹⁷⁾

“인(위)격”에 대한 칼빈의 정의에서 “한 본질”의 문제, “세 인격들의 구별”의 문제, “본질과 인격의 관계” 문제, 그리고 “위격들 사이의 관계” 문제에 대한 질문이

11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6, 참고 OS III, 116: “Personam igitur voco subsistentiam in Dei essentia, quae ad alios relata, proprietate incommunicabili distinguitur.”

11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18, 참고 OS III, 132: “Quam tamen Scripturis notatam distinctionem animadvertimus, subterceri non convenit. Ea autem est, quod Patri principium agendi, rerumque omnium fons et scaturigo attribuitur: Filio sapientia, concilium, ipsaque in rebus agendis dispensatio: at Spiritui virtus et efficacia assignatur actionis.”

116)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사용된 신학 용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식화해 보았다. *persona = hypostasis = subsistentia = πρόσωπον*.

11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19(= OS III 132).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사용된 신학 용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식화해 보았다. *persona = essentia + proprietas*.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다음 순서로 자세하게 논의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 제I권 16-20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별성과 일체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16장에서는 일체성에, 제17장에는 삼위성에, 그리고 제18장과 19장에서는 삼위의 상호 구별과 상호 관계를 논의하고, 그리고 제20장에서는 삼위일체론을 신앙고백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칼빈은 삼위일체의 삼위성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킨 사벨리우스(*Sabellius*)를 중대한 양태론(樣態論)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일체성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킨 아리우스(*Arius*)를 비롯한 종속론(從屬論)을 비판했다. 칼빈은 삼위일체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한 본질(*essentia*)을 강하게 주장하고, 성부, 성자, 성령 각 인(위)격에 공통적으로 신성(神性)과 자존성(自存性, *aseitas*)을 부여하고,¹¹⁸⁾ “본질수여자”(essentiator) 되심을 인정하고,¹¹⁹⁾ “한 하나님과 한 신앙과 한 세례의 세 가지”를 신앙경험과 교회예전(教會禮典) 차원에서 상호 인과적으로 관계시킴으로써,¹²⁰⁾ 삼신론(三神論)이나 종속론을 반대할 수 있었다. 동시에 칼빈은 삼위일체의 삼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인(위)격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각 인(위)격만이 갖는 고유성(*proprietas*)을 통해서 차별화되는 삼위의 구별성을 강조함으로써,¹²¹⁾ 양태론을 반박할 수 있었다.¹²²⁾

삼위의 구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삼위 사이의 관계성 문제를 의식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삼위 간의 구별을 나타내는 이 이름들은 삼위들이 서로 간에 갖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를 인용하고, 인식의 한계로 인해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멈춘다.¹²³⁾ 또한 삼위들 사이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순서(*ordo*)가 중요하다. 가령, 성자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에 대해서는 성자이다.¹²⁴⁾ 그리고 칼빈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한 분 하나님(*unum Deum*)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써 단일하

118) 칼빈은 영원한 성자의 신성을 I xiii 7-13에서, 성령의 신성을 I xiii 14-15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증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신적 권능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며, 또한 그가 실체(in Deo hypostatic)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I xiii 15)

119) Yoon-Bae Choi,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n*, 70.

12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16.

121) 칼빈은 “분리”(divisionem)가 아니라, “구별”(distictionem)임을 강조한다.(I xiii 17, OS III, 131)

12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5, 참고 OS III, 113-114.

12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19.

12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18(= OS III, 132), I xiii 20(= OS III 134).

고 유일하신 본질(*unicem et simplicem essentiam*)을 생각하며, 또한 그 안에 세 인(위)격들(*tres pesonas vel hypostaseis*)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한다.¹²⁵⁾

칼빈연구에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보다도 삼위성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동방교회 전통에서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유해무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동·서방교회를 초월하고 아우르는 “공교회적 입장에서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¹²⁶⁾

V. 창조와 섭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칼빈의 창조론과 섭리론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칼빈에게서 창조와 구속의 관계 문제와, 창조와 섭리의 관계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미 논의한 칼빈의 신 지식론과 계시론에서 창조주 지식과 구속주 지식은 상호 구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주 지식을 통해서만 참된 창조주 지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 분리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칼빈의 진술은 항상 잠정적인 성격(*iets voorlopigs*)을 갖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의미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인다. 창조주는 구속주와 다른 분이 아니시며, 인간은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에 대항해 서있다.”¹²⁷⁾

칼빈의 섭리론과 예정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¹²⁸⁾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창조와 섭리를 같은 범주로 생각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결부시키고, 선택과 예정은 구속주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신자들과 교회에 관련시킨다. 그러나 칼빈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과 교회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12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ii 20: “nempe quum profitemur nos credere in unum Deum, sub Dei nomine intelligit unicem et simplicem essentiam, in qua comprehendimus tres pesonas vel hypostaseis.”

126)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신학과 관련하여,” 31.

127) W. van 't Spijker (ed.), *Teksten uit de Institutie van Johannes Calvijn* (Delft: Meinema, 1987), 17.

128) 최윤배, “논의 중에 있는 칼빈의 예정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편, 『현대와 신학』 제25집 (2000), 318-333.

섭리주 하나님의 동일한 손길을 발견한다. 따라서 칼빈은 섭리를 우주에 미치는 ‘일반섭리’ (*providentia generalis*), 인류와 역사에 미치는 ‘특별섭리’ (*providentia specialis*), 신자들과 교회에 미치는 ‘아주 특별한 섭리’ (*providentia specialissima*), 즉 섭리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¹²⁹⁾

1.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1) 우주만물 창조

칼빈의 창조 이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사실에 있다.¹³⁰⁾ “이 창조의 역사(歷史)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¹³¹⁾ 칼빈은 『창세기 주석』(1554)에서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히브리어 동사(動詞)의 뜻을 분석하여 주장한다. “게다가 모세는 ‘창조했다.’는 단어를 통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조화하거나 형태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야차르’(‘צַ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라’(‘בָּרָא’)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뜻하는 바는 바로 세상이 무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¹³²⁾

칼빈은 하나님의 우주만물의 창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기술한다.

“이 창조의 역사(歷史)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 이 권능으로 모든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산출하셨다는 것, 놀라운 계열에 따라 각종의 무수한 사물들을 구별하셨다는 것, 각기 종류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성질을 주시고, 임무를 정하시며, 처소와 위치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 … 개개의 종류가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등을 배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밀스런 방법으로 어떤 피조물들을 배양하시되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 활력을 넣어 주시고 또 어떤 피

129) Calvini Opera (= CO) 7, 186; CO 8, 349, CO 49, 147; CO 51, 205.

130) 차원영, “갈뱅의 창조론,”(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09), 16-30.

13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v 20, 참고 OS III, 170: “Ex ea discemus, Deum verbi ac Spiritus sui potentia ex nihilo creasse caelum et terram.”

132) John Calvin, 『창세기 주석』(1554), 창1:1, 참고 CO 23, 1-622.

조물에게는 번식력을 주시되 그것들이 죽을 때 종(種) 전체가 멸절되지 않도록 하시며, 천지를 놀랍도록 장식하시되 극도로 풍부하고 극도로 다양하고 극도로 아름답게 하여 마치 가장 정교하고 동시에 가장 풍부한 장식으로 꾸며지고 채워진 웅대하며 화려한 저택처럼 하셨다는 것을 배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것처럼 화려한 미와 많은 위대한 은사들로 그를 장식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¹³³⁾

칼빈은 자연과학 또는 천문학의 용어를 사용하여¹³⁴⁾ 하나님의 천체(天體) 창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하나님은 어떤 별들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치에 고정시켜놓으셨으며, 어떤 별들에게는 한층 더 자유로운 운동을 허용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정된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셨으며, 모든 별의 운동을 조정하여 별들로 하여금 낮과 밤, 월(月)과 년(年), 그리고 계절을 구분하였고, 우리가 항상 보는 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의 균차(均差)를 조절하셨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것은 이처럼 큰 덩어리를 지탱해 나가시며 천체를 신속히 운행하시는 것과 그와 비슷한 일들을 관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의 몇 가지 예증만으로도 우주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밝혀 준다.”¹³⁵⁾

또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완성되었으며,¹³⁶⁾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¹³⁷⁾ 해와 별의 운동을 조정하시고, 땅과 하늘과 물에는 생물로 채우시고, 식량으로 풍부한 과실을 맺게 하심으로써, 앞을 내다보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한 가족의 아버지의 부성적(父性的)인 선하심과 사랑을 보여 주셨다.¹³⁸⁾

2) 천사 창조

13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v 20.

134) 칼빈의 과학관을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시오. 최운배, “갈뱅의 과학에 대한 이해,” 7-39.

13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v 21.

13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1.

137) 이오강, 『갈뱅의 신과 세계』, 23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22.

13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iv 1.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하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일부 사람들은 천사를 신성(神性)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경배하였다. 마니교도들은 하나님과 사탄을 두 가지 원리인 이원론(二元論)을 주장함으로써 큰 잘못을 범했다. 칼빈에 의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靈)이며, 선한 천사와 타락한 악한 천사, 즉 택함을 받은 천사와 버림을 받은 천사가 있다.

“천사는 ‘부리는 영’(히1:14)이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의 남은 일들을 수행하신다는 것 등이다.”¹³⁹⁾ 타락한 천사로서의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성에 속하는 이 사악함은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을 칼빈은 촉구한다.¹⁴⁰⁾

3) 인간 창조

칼빈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¹⁴¹⁾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全人)으로 창조되었지만, 영혼은 불멸하며, 인간의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더 고귀하다. “더구나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¹⁴²⁾ 비록 칼빈이 ‘영혼의 불멸’과 영혼의 우월성을 주장할지라도, 플라톤의 영혼불멸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플라톤의 경우, 영혼은 처음부터 창조되지 않은 신적인 존재이며, 육체는 처음부터 사멸적이며, 죄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경우 참 인간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 인간의 영혼이나 육체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히브리어 “형상”(צֶלֶם)과 “모양”(דְמוּת)을 구별하여 전자를 영혼의 실체에 적용시키고, 후자를 영혼의 성질에 적용시키는 주석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칼빈은 히브리어 두 단어는 제유법(提喻法)으로 사용되어 동일한 뜻을 갖는다고 말한

13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v 9.

14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iv 16.

14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 1.

14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 2.

다.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칼빈에 의하면, 에베소서 4:24절과 관련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는 지식을 말하며, 둘째로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완전함”(intégrité)을 유지하면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다는 점이다.¹⁴³⁾

피조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¹⁴⁴⁾

2. 섭리주 삼위일체 하나님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주(創造主)되심과 하나님의 섭리주(攝理主)되심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은 섭리주라는 신앙고백에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creatore)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와 보존자(moderatore et conservatore)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주적 움직임을 통해서 천체와 그 각 부분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가 만드신 만물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¹⁴⁵⁾ 칼빈에 의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사(人間事)를 돌보신다는 것은 믿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주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신중히 믿지 않을 것이다.¹⁴⁶⁾

칼빈에 의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사상은 운명이나 우연한 사건과도 반대된다.¹⁴⁷⁾ 칼빈은 하나님께서 가끔 일을 중단하시고 쉬신다는 쾌락주의자들의 이신론적(理神論的) 사상에도 반대하고, 고대 점성술(占星術)을 하나님의 섭리와 결부시키는 사상이나, 미래사에 대한 단순한 예지(豫知) 사상에도 반대한다.¹⁴⁸⁾ 섭리 문제와 관련하여 칼빈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환기시킨다.

14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 4.

144) 최운배 공저,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32-34.

14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1.

14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1.

14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2; I xvi 8-9.

14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3-4.

“우선 독자들은 섭리(*providentiam*)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가하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으로서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신다(*moderatur*)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섭리란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그의 손길에도 관계되는 것이다.”¹⁴⁹⁾

앞에서 말했다시피, 갈빈은 섭리를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즉 우주에 미치는 ‘일반섭리’ (*providentia generalis*), 인류와 역사에 미치는 ‘특별섭리’ (*providentia specialis*), 신자들과 교회에 미치는 ‘아주 특별한 섭리’ (*providentia specialissima*)이다.¹⁵⁰⁾ “하나님의 일반섭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역사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계획으로 본래의 확실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¹⁵¹⁾ “우주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를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기만 한다면 나는 저들이 말하는 일반섭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겠다. …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구실로 해서,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확실하고 명백한 성경의 증거로 확증된 그 특별섭리를 부당하게 가리고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확실히 내가 말한 바 있는 취장으로 그 특별섭리를 가리는 자들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없게 되었다.”¹⁵²⁾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통치 역시 이 목적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¹⁵³⁾ “실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진지한 기도(마6:11)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양육하심으로써 한 가족의 가장(家長)의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시 136:25)라고 하였다.”¹⁵⁴⁾ “나는 단순히 인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거할 곳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

14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4, 참고 OS III, 192.

15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 6.

15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7.

15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4.

15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6.

154)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 7.

실 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특수하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¹⁵⁵⁾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항과,¹⁵⁶⁾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의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하여 설명하고,¹⁵⁷⁾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책임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으며¹⁵⁸⁾, 인간의 악함을 무죄로 간주하지 않는다.¹⁵⁹⁾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¹⁶⁰⁾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심판과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¹⁶¹⁾ “하나님의 의지는 만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선택된 자들에게서 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을 복종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일에 대한 결정적인 원리로 삼는다.”¹⁶²⁾

칼빈은 역사 안에서 악의 문제, 즉 신정론(神正論)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자신의 입장을 대신한다. “성부는 성자를 내어 주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내어 주셨으며 유다는 주님을 관헌들에게 내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저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¹⁶³⁾

VI. 결론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종교개혁 전통과 개혁신학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개혁파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론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회의 뿌리를 재검점하여 신앙과 신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고에서 칼빈의

15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 6.

15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 1.

15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 2-11.

15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 3.

15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 5.

16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 4.

16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 5.

16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i 2.

16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I xviii 4.

신지식, 계시,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 특히 삼위일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논의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게 대한 지식을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자연계시는 지금도 창조주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획득한 불완전한 창조주 지식을 선용하지 않고, 오용하여 위상숭배와 악독으로 빠진다. 그 결과 자연계시를 통한 인간의 불완전한 창조주 지식은 무지를 핑계치 못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특별계시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 (*duplex cognitio Dei*)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다.

칼빈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이중지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지금도 '성령의 내적 조명' (*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을 통하여 신앙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칼빈의 성경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에 속한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하여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성 및 삼위일체성을 강조하였다. 성경과 고대교회 전통에 충실한 칼빈은 삼위일체의 삼위성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킨 사벨리우스(*Sabellius*)를 중심한 양태론(樣態論)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일체성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킨 아리우스(*Arius*)를 비롯한 종속론(從屬論)을 비판했다. 특별히 그는 서방교부와 동방교부를 성경의 기준에 따라 공히 그 가치를 인정하여 삼위일체론을 전개함으로써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있다.

칼빈은 창조론과 섭리론을 같은 범주에서 취급하고, 예정론을 구원론과 교회론의 범주에서 취급하였다. 그러나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다. 칼빈의 경우,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완전히 이르게 된다. 칼빈의 경우, 창조는 선한 창조이며,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6일간의 창조로서, 창조의 목적에는 인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물에 대한 창지기의 사명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천사도 창조하셨으며,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섭리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칼빈은 섭리를 세 가지를 구분한 바, 우주에 미치는 '일반섭리' (*providentia generalis*), 인류와 역사에 미치는 '특별섭리' (*providentia specialis*), 신자들과 교회에 미치는 '아주 특별한 섭리' (*providentia specialissima*)이다.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하여 추천도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에 나와 있듯이 네덜란드의 멀러의 작품(*De Godsleer van Calvijn*, 1881)이 칼빈의 신론연구에서 고전(古典)에 속하고, 칼빈의 신론을 개괄적으로 다룬 훌륭한 저서와 관련하여, 독일의 니젤(Niesel)의 『칼빈신학』과, 프랑스 방텔(Wendel)의 『칼빈』과, 두메르그(Doumergue)의 7권의 대작 중에 제IV권과, 이양호의 『칼빈』과, 최윤배의 공저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박경수의 『교회의 신학자 칼뱅』등이 있다. 칼빈의 신론이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다루어진 작품은 스토페르의 창조론, 이오갑의 『칼뱅의 신과 세계』와 박해경의 『칼빈의 신론』이다. 칼빈의 삼위일체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최고(最高)의 연구는 네덜란드 아펠도른(Apeldoorn) 기독교개혁신학대학교의 신학박사학위논문인 아리 바르스(Arie Baars)의 『하나님의 높이계심과 가까이계심을 중심으로: 칼빈에게서 삼위일체성』(*Om Gods verhevenheid en Zijn nabijheid: De Drie-eenheid bij Calvijn*, 2004)이다.

주제어(Key Word)

칼빈(Jhon Calvin), 하나님(God), 창조(creation), 섭리(providence), 계시(revelation)

참고문헌

-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과 독특성과 중요성.” 『칼빈연구』 창간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1-69.
-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박해경. “칼빈의 신론.”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개요』.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31-48.
- 박해경. 『칼빈의 신론』. 서울: 이컴비즈넷, 2005.
- 유해무. “칼빈의 삼위일체론.”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33-153.
- 유해무. “칼빈의 삼위일체론, 동방신학과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7-31.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이오갑. 『칼뱅의 신과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차원영. “칼뱅의 창조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2009.
- 최윤배 공저.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최윤배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Baars, Arie. *Om Gods verhevenheid en Zijn nabijheid: De Drie-eenheid bij Calvijn*. Kampen: Uitgeverij Kok, 2004.
- Butin, Ph. W.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Choi, Yoon-Bae.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Leiden: J. J. Groen en Zoon, 1996, 38-77.
- Doumergue, 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II*. Lausanne, 1899-1917; Neuilly, 1926-1927.
- Koopmans, J. *Het oudkerkelijk dogma in de Reformatie, bepaaldelijk bij Calvijn*. Wageningen 1938.
- Mackey, J. P. *The Christian Experience of God as Trinity*. London: SCM Press, 1981.

- Muller, Pieter Johannes. *De Godsleer van Calvijn*. Groningen: J. B. Wolters, 1881.
-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57.
- Selderhuis, H. J. *Gott in der Mitte*. 장호광 역. 『중심에 계신 하나님: 칼빈의 시편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2009.
- van 't Spijker, Willem. *Johannes Calvijn: Zijn Leven en Zijn Werk*. 박태현 역. 『칼빈의 생애와 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 Stauffer, 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e: Peter Lang, 1978.
- Torrance, T. 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Gregory of Nazianzus and John Calvin." Torrance, T. F. *Trinitarian Perspectives*. Edinburgh: T. & T. Clark, 1994.
- Wendel, W.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 Warfield, B. B. "Calvin's Doctrine of the Trinity."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1931.